연중 제 23 주일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기도서 430면(B해)
제1독서 : 이 사 35,4—7a
제2독서 : 야 고 2,1—5
복 음 : 마 르 7,31—37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쉰 다음 "에파타"하고 말씀하셨다. "열려라"라는 뜻이었다. (마르 7,34).

□ 강 론

"열려라"

현 유 복 신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읍니다. 그 친구는 전혀 듣지를 못했었고 또 말도 하지 못했던 벙어리였읍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친구가 몇 해 전에 불의의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읍니다.

어느 제재공장에서 여러 인부들과 일을 하다 통나무들이 와그르 무너지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잽싸게 피했는데 그 친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여 그만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듣지를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벙어리가 말을 못하는 것은 혀가 없어서가 아니라 듣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입 모양만 시늉을 낼 뿐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우선이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도 말하는 것보다 듣는것 부터 먼저 배웠읍니다.

요즘 우리는 들어주는데 있어서 퍽나 인색합니다. 끈기있게 들어준다는 것이, 속사정까지 나누려는 마음으로 들어 준다는 것이 하나의 고통이며 희생이기 때문이라 하겠지만 안 보고 안 듣고 사는 것이 상책이라는 편리한 생각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들 귀에는 농부들의 한숨 소리도, 노동자들의 신음 소리도 듣지를 못하고 학생들의 데모 소리도 실증이 났다고 이맛살을 찌푸립니다. 들어 달라고 목메어 호소하는 부르짖음을 외면할 때 우리는 분명 비겁한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 아집과 울법에 사로잡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적으로 낙인 찍고 십자가에 처형하였듯이 우리 자신들도 자기만을 고집하므로서 주위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단죄하고, 매도하였는지 깊은 반성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말을 건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읍니다. 내 가정 안에서 식구들 중 한명일 수도 있고, 늘 같은 방에서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읍니다. 너무나 바빠 보이는 나에게, 일 푼이라도 더 벌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나에게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입은 많아도 귀가 없는 세상! 이런 세상에 예수님의 큰 소리가 들립니다.

"에파타!!"(마르 7,34)

(남원 주임신부)

소리 나눔의 신비

지난 주일날 서울 화양동 성당에서는 어려운 본당의 성전 신축을 돕기 위한 촛대 판매가 있었다. 지방에서 도움을 받고자 올라온 신자들과 화양동 본당의 신자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촛대를 팔았다. 새벽미사부터 밤미사에 이르도록, 한낮에는 따갑게 내려 쪼이는 햇볕을 받으며 구슬땀을 흘리는 두 본당 신자들의 모습이 한결 보기에 아름다웠다. 나눔의 신비가 열매를 맺는 현장이었다.

요즈음 살기가 매우 어렵다고들 말한다.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그리고 없는 사람은 더 말할 나위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때에 화양동 본당에서도 성당이 비좁아 2억원을 목표로 모금에 나섰다. 그러한 그들에게 지방의 어려운 사정이 알려졌다. 자기들이 당면한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지방 본당의 딱한 실정을 쉽게 거절할 수 있겠으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나중에사 화양동 본당의 실정을 알게 된 지방 본당의 신자들이 어쩔줄 몰라하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되풀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하나도 꾸밈없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이니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였다. 이 말을 들은 지방 본당 신자들은 신앙생활의 참뜻을 다시 배우며 가슴속으로 뜨거운 감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촛대 판매의 이익금이나 특별헌금으로 성전을 짓는데 보탬을 얻고자한 이상의 것을 얻게 되었다.

가진것을 서로 나누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나눔이란 우선 당장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삶이란 항상 나눔으로써만 가능한 것이고, 또 나눔으로써 우리는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나눔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9월에 십자가의 나눔을 순교로 증거한 신앙선조들에게서 큰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숲정이 산책

우리 모두 협조합시다.

성서교실 ㉓

너희도 떠나 가겠느냐? (요한6 : 67)

이 말씀은 「생명의 빵」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갔을 때, 예수가 12제자들을 보고 말한 내용이다.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6,61). 이 말은 원문에는 「스칸달」이라는 말로 되어 있다. 기르케골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신앙"이냐」 아니면 「"스칸달"이냐」 이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고전1,23).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다인들에게는 「스칸달」이 되었고, 희랍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 가겠읍니까?」(6,68). 베드로는 여기서 다시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적어도 4가지 것을 확신하였다는 것이다. ① 절대 다른 사람에게는 갈 수 없다는것. ②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것, ③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는것, ④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은 인간에게 「새 탄생」을 가져다 준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자녀입니다」(요일 5,1).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계시이며, 동시에 지금 영생을 누린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마디는 원문에는 「레마」로 되어 있다. 「레마」는 자극을 동반하는 말씀이다. 이 자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영원한 「삶」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버리고, 우리가 뉘게로 가겠다는 말인가?

청소년 대회

청소년의 바른 자람을 위한 "배움과 놀이" 계획

1. 제 목 : "젊음의 한마당"
2. 목 적 : 도시와 농촌 청소년들이 한마당에서 한바탕 크게 어울리고 이야기 하며 뛰어노는 동안에 동포애와 신앙심을 기르고 내일의 주인공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다
3. 형 식 : 대화의 광장과 놀이
4. 참가범위 : 전라북도 내 청소년(전라북도내 중고등학생 및 20세미만 도시와 농촌 근로 청소년) 약 2,000명
5. 일 시 : 1985년 9월 22일 10 : 00~17 : 00
6. 장 소 : 전북 학생회관
7. 내 용
   (1) 대화의 광장(토론회)
   가. 주제 : "청소년 무엇이 문제인가?"
   나. 소주제 : ·사회안에서의 교회의 의미
   —믿음과 실천
   —교회안과 교회 밖의 생활
   —비신자와의 관계
   ·청소년 교육의 바른 길
   —인간화 교육
   —국적있는 교육
   —학교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
   ·청소년 문화의 실상과 가야할 길
   —전통 문화와 외래문화
   —도시문화와 농촌문화
   —성인문화와 청소년문화
   다. 진행요령
   소주제별로 주제 발표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인다.
   소 주제별 토론회에 이어 종합적인 결론을 발표함.
   ◦소 주제별 토론회 중간에 장기자랑, 다함께 노래부르기 등 오락 프로그램을 함께 한다.
   ※ 한마음 한노래팀 초청
   (2) 무용극 : 순교의 정신, 통일의 염원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무용단체의 발표.
   (3) 마당굿 : 마당굿의 내용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등을 극화하며 단순한 풍자나 비판에 그치지 않고 민족 주체성에 입각한 발전적인 청소년 문화와 가치관 정립에 기여하도록 한다. 가능한한 많은 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4) 미 사 : 종결미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따르며 기도하는 것으로 행사를 끝맺는다.

애밀래 레스토랑 개업

국내 수준급 시설을 완비한 최고급 레스토랑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간 : 커피 · 음료수 · 식사
야간 : 칵테일 · 주류 · 식사
☎ 75—3 0·3 0

대표 : 손영대(이레네오)
이승희(마리아 막달레나)

경찰□국
애밀래
관통로
풍년제과□중앙동

알로에 T.V 방송 안내

KBS 2TV—매주 목요일 오전 6시 30분~7시
"할아버지 할머니 시간"
*8월 29일 *9월 5일 *9월 12일 *9월 19일
알로에 농장 : 완주군 이서면 애통리
문 의 : 전화(전주) ③ 3064
장 그레고리오 · 고 헤레나

교 구 소 식

※ 축! 견진 : 옥봉천주교회, 9월 14일, 오후8시 주례—박정일 주교님
팔마천주교회, 9월 15일 10시 30분, 주례—박정일 주교님

1. 전체 젠모임 : 오늘 오후 2시 30분, 장소—센타 교육관
2. 어린양들의 모후 소년 꾸리아 : 8일(오늘) 오후 1시 30분, 장소—전동성당
3. 신앙대학 2학기 개강식 : 9일 오후 7시 30분 교육관에서
4. 전주교구 교리교사 연합회 9월 월례모임 : 9일 6시 30분
대상—교리교사 교구, 지구임원 및 각 본당 회장
5. 김제지구 시민강좌 : 10일 오후 8시, 장소—요촌천주교회
제목—농촌실상과 민생문제, 강사—정호경 신부(농민회 전국 지도신부)
6. 남자중학생 성소자 피정 : 15일 오전 10시~오후 5시
주제—믿음의 성장, 회비—2천원, 장소—가톨릭센타
준비물—성서, 필기도구, 성가집
7. M. E 소개모임 : 15일 오후 2시 30분, 장소—가톨릭센타
M. E 10차 재모임—15일 오후 3시, 장소—가톨릭센타
8. 9월중 교미시움회의 개최 : 15일 14시, 장소—전동천주교회
대상—각 꾸리아 간부 및 직속쁘레시디움 간부 전원, 회의록과 출석부 배부
9. 청소년 대회 : 22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전북학생회관

※ 감사합니다 : 서울 성소후원회, 7월·8월—각 50만원, 계 : 1,000,000원

□ 사제 인사발령 □(9월 3일부)

김종택 신부—정양(대야)
김희남 신부—중앙 임시보좌·유학 대기
한정현 신부—대야본당 주임(중앙보좌)
김용태 신부—M. E지도(먼·이재후 신부)
안철문 신부—사제평의회 군종대표

♣ 잠 깐!

뭘 좀 알아야…

가톨릭신문 0.6%, 경향잡지 0.3%, 생활성서 0.5%, 주님의 날 0.4%.

—교구에서 취급하는 교회 간행물 구독현황이 교구민 8만여 신자에 비해 너무 부끄럽다.

일반 사회의 그 많은 잡지들, 온갖 풍류의 책들이 안방의 서가를 채우고… 주간잡지가 뒹구는 우리들의 안방에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정기적인 교회 월간지나 교회 신문 한부 정도는 집안 식구들이 함께 읽어 볼 일—.

그래서 교회의 소식과 신앙적 지식을 넓히고 우리들의 신앙을 더 깊이하는데 도움을 얻고 배우자는 것이다.

이제 시원해진다.

이때쯤엔 책읽기 좋은 계절이라고들 한다. 우리도 이 기회에 작은 신심서적이나 교회의 간행물이라도 손에 들고 읽자.

"뭘 좀 알아야, 신앙의 참 맛도 알고…, 그래서 전교도 하고…, …도 하지."

결혼·약혼·회갑(출장 환영)
약혼복 드레스 무료대여
영미칼라사진관
급속(면허용) 각종서류사진
신부야외 촬영, 비디오 촬영
(신자분은 특별할인)
전주시 교동 경기전사거리
(성심여고옆) ☎ ②8507
(주) 조 동 호(노렌죠)

◆희소식!
간경화, 만성간염 및 각종 암등 난치병 무료상담 안내
※ 불치의 간경화의 경우 90% 이상의 놀라운 성공률!
건 강 무 료 상 담!
일 시 : 1985. 9. 9(월) 오후 2시
장 소 : 전주(구, 성모병원) 3층 309호실
강 사 : W.B.L 12207. 자연식품 연구소
최 종 명(노렌조) 수사
※ 문의전화 : 72—3925

—성인병은 치료보다 예방을—
영지! 영지! 영지!
⊙ 2천년도 훨씬 전부터 선초라고 해서 만병에 사용되었다. 때로는 불로장수의 약이라는 전설까지 생긴 이상한 나무새끼들.
—보건신문 83년 2월10일자—
불로선초 「영지」의 베일을 벗긴다에서
⊙ 영지의 효능
*암 *당뇨 및 간염예방
*동맥경화·고혈압·중풍·어혈
*위와 장질환
*관절염 및 신경통
*기관지염 및 간기능강화
*기타 성인병과 노화방지
⊙ 봉사하고 있읍니다
*직접 재배하기 때문에 값도 싸고 양도 더 드립니다
*포장된 선물용도 있읍니다
월성 영지농장
이리시 월성동
(글라라 봉쇄 수녀원 앞)
③4773·②8953
강 영 순(제노베파)

제 I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의 철
아파트 75—6389 사도회장 이 홍 재

1. 견진성사 신청 마감일 : 15일(다음주)까지
신청대상—청년·일반인(고등학생까지는 제외)
신청서류—영세증명서 1통, 견진신청서(사무실에 있음)
2. 꾸리아 회의 : 오늘 오후 2시부터
각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3. 외부강사 초청 강의 : 10일, 어머니미사 후
강의내용—청소년문제의 교양강좌
강사—추건성 박사
4. 전자올갠 구입기금 신입합시다
4구좌—임재빈, 2구좌—이승은·김성희·양순례·윤아오스딩, 1구좌—최낙현·김후경·문정숙·양선숙·심덕순·김영순·정미순·이윤우·조용남·양인자·박금자
계—115,000원, 누계—2,555,000원
5. 공소 순회미사 : 14일 저녁 8시, 다리리공소
6. 금주의 전례담당 : 제3조, 차주는 제4조가담당입니다
7. 숲정이(주보) 은인 구합니다 : 1주분—9천원
도와주실 분은 본당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8. 중·고 지도자 모임 : 오늘 저녁미사 후
남녀 지도자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428,760원 교무금 : 510,000원
신축기금 : 81,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 영 균
사무실 2—5238 사도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1. 꾸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2. 성우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교무금 : 미수되신 분들 속히 완납바랍니다
4. 예비자 교리 : 주일 공식미사 후, 수요일 저녁 8시
5. 어머니 성가대 성가연습 : 13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6. 주일 공식미사 10분전에 오셔서 성가를 배우고 미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7. 성당안에서 품행을 단정히하시고 사담을 금해주세요
8. 청영성체 교리 : 각학교에서 가을운동회 관계로 10월로 연기합니다
9. 주일학교 출석율이 부진합니다 : 부모님들 관심을 가지고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10. 새로 영세하신 분들 서민금고 복지 신용협동조합에 가입을 권고합니다
11. 금주 성당청소 : 월—평화의 모후pr
토—구세주의 모친pr
차주 성당청소 : 월—사랑하오신 어머니pr
토—순결하신 어머니pr
12. 금주전례 : 해설—황만금, 독서—①정동민 ②송영자
차주전례 : 해설—최정순, 독서—①서남준 ②신젬마

□ 지난주 봉헌금 : 197,250원 교무금 : 497,800원

(상관)

사제관 주임신부 김 영 신
사무실 79 사도회장 이 정 우

1. 청년회 창립총회 : 공식미사 후
2. 구역형제회 일정
8일—외어두·상하신·내정·백암
9일—내어두·원신·마치·수월·서당
10일—석장·신흥·의암·색장
※ 8시30분까지 모두 모여주세요
3. 신용조합 월례회 : 15일 공식미사 후
4. 8월말 현재 교무금 결산 39%
교무금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5. 치과진료 : 15일 공식미사 후
※ 틀니 맞추신분들만 진료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16,770원 교무금 : 10,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무실 〃 사도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1. 9월 순교자 성인 103위 성월을 더욱 열심있게 지냅시다
①순교자 성인들의 서적을 읽읍시다
②매일 성월기도 바칩시다
③성지(요한, 루갈다 묘지) 참배합시다
④매주 목요일 10시미사—요한, 루갈다 묘지에서 있읍니다, 미사 후에 각 pr 회합이 그곳에서 있읍니다
2.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성당에서 신자들 전원 참석하에 합니다
3. 반장님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4. 꾸리아 월례회 : 오늘 오후 2시
요한·루갈다 묘지 앞에서 있음
5. 성심회 : 13일 오후 2시
6. 성모회 : 22일 주일로 연기합니다
착오 없기 바랍니다
7. 견진성사 : 11월 3일에 있읍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8. 가정방문 : 매주 화·수요일에 있읍니다
9. 성지참배 : 15일 주일 공식미사 마치고 김안드레아(대건) 성인의 제씨 김바오로(란식) 묘지를 참배하려고 합니다. 버스 2대를 대절하오니 희망자는 차비 1천원을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각자 도시락 지참, 장소는 임실 갈담
10. 미사시간 변경 : 저녁미사—8시에서 7시30분으로
11. 다음주 전례

미 사	해 설	1독서	2독서	기 도
첫 미 사	함문권	문치구	함문권	전 영 택
공식미사	김상곤 고정수	송남용	차상열	교 육 분 과
저녁미사	최창림	강경호	김은숙	김 은 경

□ 지난주 봉헌금 : 일반—421,250원,
중·고생—11,390원, 주일학교—6,600원
계—439,240원 교무금 : 172,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기 곤
수녀원 2—8347 사도회장 김 병 오

※ 축! 영명 : 공식미사 후, 축하식
조레지나 수녀님·김그레고리오 회장님
1. 자모회 : 8일 주보첨례미사, 미사 후
2. 성화회·교미시움 : 다음주
3. 소년 꾸리아 : 8일 오후 1시30분, 사제관 2층
4. 수세식 화장실 공사에 적극 참여합시다
5. 다음주 봉헌담당 : 장금태 부부
6.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기정희, 독서—①최병래 ②이주영
공식미사 : 해설—서정옥, 독서—①이종두 ②백종흠

□ 지난주 봉헌금 : 949,100원 교무금 : 668,000원

(효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도회장 이 교 성
수녀원 2—4804

1. 주부 성서대학 : 11일 오전 10시, 용기①
2. 주일학교 야동 : 토요일 오후3시30분까지 보내주세요
3. 모임 : 글라라회—오늘, 성모회—차주
4. 교육관 신축 묵주기도 : 6,443단, 누계—99,090단
5. 구역기도 모임 : 에그린 가동 408호
10일 오전 10시, 김우출라 댁
6. 건축헌금(납입자)
20만원—정귀님·이창호, 10만원—타본당, 5만원—김영주, 2만5천원—김상도, 3만원—익명, 1만원—서정남, 5천원—조순희

□ 지난주 봉헌금 : 508,750원 교무금 : 487,000원
건축헌금 : 620,000원

*인 쇄 : 전 주 보 광 출 판 사 ☎ 3—7440